

제목 : 듣기만 하는 믿음에서 따르는 믿음으로

본문 : 요한복음 7장 1-24절

[본문 포인트]

1. 예수님의 형제들도 믿지 않았다.

- 1)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과 함께 자랐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도 들었을 것이다.
- 2)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능력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다.
- 3)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으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 4)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고, 십자가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다.

2.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 1)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 가운데 살아가셨다.
- 2) 예수님의 때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때이다.
- 3)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 너희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 4) “무엇을 하느냐” 만큼 중요한 것은 “언제 하느냐”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

3.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함

- 1)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13절)
- 2) 사람들은 종교지도자들이 두려워 예수님에 대해 말하지 못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
- 3) 사람에게 대한 두려움은 믿음에 대한 고백을 막는다. (가족, 직장, 사회, 나라)
- 4)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사람들의 인정을 더 사랑하면 공개적으로 믿음을 고백하기 어렵다.

4. 예수님의 교훈은 하나님에게서 왔다.

- 1)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16절)
- 2)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고 동의하여 말씀하신다.
- 3)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17절)
- 4)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출처를 알게 될 것이다.
- 5) 마음속으로 “순종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진리를 왜곡하게 된다.
- 6) 진리를 아는 것과 순종은 함께 가는 것이다. 순종해야 진리를 깨닫게 된다.

[나눔 내용]

1. 예수님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나 압력보다 아버지의 때에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가, 사람 및 환경의 압박과 조급함에 끌려갑니까?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도 내가 억지로 밀어붙이는 부분은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동안 내가 준비하고 순종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을 때 정말 변화되고 순종할 마음이 있습니까? 또는 내 생각과 맞는 말씀은 받아들이면서, 불편한 말씀은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최근 말씀을 통해 깨달았지만 아직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기 어려운 영역은 무엇입니까?

3. 나는 예수님보다 사람 또는 사회의 인정이 더 중요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관계 또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적은 있습니까? (관계, 체면, 직장, 가족, 친구 등)

4.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장 먼저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